

## “ 시선의 전쟁 ” (두려움과 믿음 그 사이)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 **성경봉독** : 사무엘상 17장 22~26절 말씀

### ▶ A. 구역공과 ◀

1.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내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문제 앞에 올라오는 감정과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려고 의식적으로 선택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나눠봅시다.
2. 내 ‘골리앗’ 앞에서 나는 어떤 시선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즘 내 마음을 가장 크게 압도하는 ‘골리앗’(관계/건강/경제/자녀/미래/죄의 습관/불안 등)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주로 사울처럼 ‘골리앗의 크기’에 갇혀 반응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반응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나눠봅시다.
3.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서려 할 때, 나를 꺾는 ‘엘리압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일어서려는 순간 가까운 사람의 비난과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나도 순종하려고 할 때 용기를 꺾는 주변 사람의 말/시선/분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4. 내 ‘물맷돌’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물맷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능력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쌓인 성실함과 훈련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훈련할 믿음의 물맷돌을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 하나로 정해 봅시다.

### ▶ B. 공동체 성경읽기 ◀

**월요일(레 23~25장)** 레위기 23~25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와 안식의 의미를 다룹니다. 절기와 안식년, 희년은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므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기억을 잊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며,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월



화

**화요일(레 26~27장)** 레위기 26장은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신실한 분이시며, 회개하는 자를 끝내 버리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2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 삶의 결단이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수요일(민 1~3장)** 민수기 1~3장은 광야 여정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비하는 모습입니다. 광야 여정을 시작하며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계수하게 하시며, 2장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구역을 정해주십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으로 구별됩니다.



**목요일(민 4~6장)** 민수기 4장은 성막을 섬기는 각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민수기 5장은 진영의 정결과 잘못에 대한 배상,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할 때의 의심의 소제물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의 나실인 규례와 제사장의 축복은 거룩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금요일(민 7~9장)** 7장은 성막 봉헌을 위해 각 지파가 동일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8장은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과정을, 9장은 유월절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이 머물면 머물고,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사는 공동체입니다.



**토요일(민 10~12장)** 10장은 나팔 소리와 함께 광야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11장은 만나에 대한 불평과 고기를 탐한 욕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 줍니다. 12장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광야는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훈련받는 자리입니다.

**주일(민 13~15장, 시편 90편)** 13장은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 믿음과 두려움이 갈라지는 순간을 보여 줍니다. 14장은 불신앙의 선택이 광야 방향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기록합니다. 15장은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시 순종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시편 90편은 광야 1세대를 바라보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 성경을 읽고 난 후 각자 느낀 점을 나눕니다.**

**\* 합심기도 :**

1. 골리앗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해주옵소서
2. 믿음을 꺾는 ‘엘리압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3.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성실함과 믿음의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사용할 물맷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405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